

# “알츠하이머, ‘홍잠’ 먹고 예방하세요”

### 홍잠 먹인 쥐, 치매 증상 거의 없고 치매 단백질 축적 안 돼

‘익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찌서 동결건조한 ‘익힌 숙잠’인 홍잠(弘蠶)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교영호 교수 연구진)와 공동연구를 통해 홍잠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잠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

페놀 등 다양한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5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70% 이상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고령화로 뇌의 신경연접이 줄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병한다. 이 병에 걸리면 기억력이나 사회성은 낮아지고 공격성은 커지며, 수명도 짧게 된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예방법이나 치료 방법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에 홍잠을 50주 동안 먹인 뒤 베타아밀로이드의 뇌 축적량을 확인한 결과 홍잠을 먹은 쥐는 정상 쥐와 마찬가지로 전혀 축적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로 작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다. 홍잠을 섭취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크게 증가해 ATP 생성량이 40% 늘었고, 뇌의 신경연접은 50% 내외로 늘었으며,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도 15% 내외로 증가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은 홍잠 생산용 누에 품

종을 선정하기 위해 누에 품종별로 비교한 결과, 백옥잠과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신경연접 개선 효과가 좋았다. 단기 기억력 개선, 신경세포보호 등은 골든실크로 만든 홍잠이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조난준 잠사양봉소재과장은 “꾸준히 홍잠을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많은 국민이 홍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잠 생산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 'NH콕뱅크' 가입고객 500만명 돌파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이 간편뱅킹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는 스마트 기반 앱 'NH콕뱅크'가 출시 3년 2개월만인 18일에 가입고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NH콕뱅크는 핀테크로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과 고령층도 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농업인 디지털 권익' 증진에 기여하며, 최근에는 일평균 100만명이 방문하고, 월 2천만건 이상의 송금건수를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의 10%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지난해는 금융권 최초로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인 콕푸드를 출시했으며, 농업인에게 맞춤형 영농정보를, 도시민에게는 고품질 소식을 전하는 콕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고령층 전용 송금 화면과 금융상품 메뉴 신설 등 금융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콕뱅크 4.0을 출시할 계획이며, 콕팜에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인력증가, 행복골센터 등 농업인 실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향후 콕뱅크(금융)는 간편뱅킹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콕팜(정보)은 농업인에게 각종 디지털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플랫폼으로서 농협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며, 콕푸드(유통)는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로서 농산물 판매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금융·정보·유통을 융복합한 멀티플랫폼으로 성장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우정청이 18일 우정청 10층 라이브포스트홀에서 '별정우체국 소통·상생을 말한다' 회의를 개최했다.

## 전북지방우정청, '소통·상생을 말한다' 회의 개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정창립)은 18일 우정청 10층 라이브포스트홀에서 별정우체국 전북도회 김종관 회장, 별정우체국 지회장, 직원대표 등 40여명의 별정우체국 관계자와 우정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별정우체국 소통·상생을 말한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우정사업본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등 우

정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별정국의 경영위기 극복 우수사례 발표, 2019년 하반기 우정사업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관 도회장은 “우리 별정국은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주민들과 함께 왔다. 이제 우정사업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이번 회의로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새롭

게 하고 별정우체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립 청장은 “별정우체국은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서도 우정사업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별정우체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경영파트너로서 소통·상생 발전의 경제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여 전북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7일 익산 웨스트 라이프호텔에서 익산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제19회 리더스포럼'을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경향신문 선임기자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파워 멘토인 유인경 강사를 초청해 매력적인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했다.

이날 유인경 강사는 오랜 기자생활과 방송생활로 얻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특유의 유쾌한 화법을 곁들여 강연을 진행했다.

소통하는 방법으로 ABC방법을 제안했는데, 먼저 A : Ask, 자신을 타인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 B : Believe,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주변사람을 믿는 것. C : Cheerful 로 모든 일에

있어서 밝고 긍정적인 면을 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응원하는 자신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기성세대와 Z세와의 세대공감 ABC방법을 통해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는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리더스포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

### 국민연금공단, 창립 32주년 기념식 개최 김성주 이사장 “연금개혁 논의 지속해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7일, 공단 본부 시옥 1층 온누리홀(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32년간의 성과를 조명하는 연혁보고를 비롯하여 신규직원 부모님 초청행사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비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위기상황에도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7월 4일 700조 원 돌파와 함께 올해 상반기 7.19%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특히 2017년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올해 6월까지 81.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이사장은 공적연금만으로 최소한의 노후보장이 되는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앞으로 긴 세월

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 1,000 조 시대에 걸맞은 운용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적 기금이자 장기 투자로서 확고한 투자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며, 투자다변화 전략에 맞춰 해외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안정된 기금운용을 위해 우수한 인력 채용과 함께 기금운용 인력 양성 체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국민연금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이사장은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대국민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치열한 고민과 지속적인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판매플랫폼 품평회 성료

전북도가 주최하고 농촌융복합지원센터와 전북농협이 주관한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품평회'가 18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됐다.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품평회는 도지사 인증을 받은 14개 시군 19개 융복합산업업체가 장류, 건강기능식품, 빵류 등 농수산 가공품 50여 품목으로 참여했다.

또 유통·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판매가격, 구성, 포장상태, 판매가능성에 대한 맞춤형설립 및 현장심사를 진행해 참가 경영체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업체에게는 10월말에 열리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판매 플랫폼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협의 공익적인 목표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주는 것인 만큼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 판촉전을 개최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년째 농촌융복합산업 판매플랫폼 사업을 해오고 있는 전북농협은 판촉전 및 박람회 참여 등으로 도내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체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